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Hours Children Spent in Child Care Centers among Dual-working Families

신나라·안재진*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Shin, Nary-Ahn, Jaeji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hours spent in child care centers by children of dual-working familie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way of a survey that involved a total of 33 child care centers. A total of 465 families took part in the study. Child factors, parental factors, household factors, and child care center factors were included i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on which this study was b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eight primary factors related to the number of hours spent in child care centers by children of dual working families, which were as follows: (1) children's engag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2) maternal working hours, (3) parents' preference for child care center as a non-parental care provider, (4) the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the child care center in the household, (5) the presence of adults other than parents in the household, (6) accessibility to the child care center, (7) the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services, and (8) the primary purpose of child care center use.

Keywords: child care center, use of child care centers, dual-working families

I. 서론

취업모의 급격한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어린이집 이용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1년 보육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39,8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아동은 1,348,729명

에 달한다. 이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한 취학전 영유아 2,759,816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육서비스의 목적은 크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과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국공립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Ahn, Jaejin

Tel: 02-2077-7541, Fax: 0303-0801-1045

Email: jjahn@sookmyung.ac.kr

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보육의 보편성이 담보된 지금까지 여전히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법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 또한 이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40여분으로 길지 않으며, 취업모의 경우에도 평균 8시간 38분 정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h *et al.*, 2009). 이는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소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영유아의 특성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접근성이 좋은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출퇴근을 포함한 부모의 일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과 더불어 친인척과 같이 다른 대리양육 방법을 함께 사용하거나, 아이를 맡길만한 친인척이 없는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이 1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중단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 가족의 보육서비스 선택 영향 요인을 살펴본 Ahn과 Kim(2010)의 연구 결과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즉 어머니가 전일제로 일하거나 초과 근무가 잦을수록 어린이집보다는 친인척 보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이 취업모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 간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정책적으로는 어린이집의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하기에는 영유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차량 운행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에 차이가 있거나, 미취업모 자녀들의 이른 귀가 이후 소수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보육이 부모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는 가급적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사교

육 프로그램이나 대리양육 등을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즉, 실제 법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는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자발적으로 또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린이집 이용을 단축하게 되며, 이 간극이 클수록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추가 양육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도 담보 상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다 의미 있게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양육을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모성보호(nonmaternal care)를 처음 시작한 연령(Ahn & Shin, 2011; Singer *et al.*, 1998), 서비스 이용시간과 같은 보호의 양(Jeong *et al.*, 2005; NICHD, 1997), 서비스의 유형(Ahn & Kim, 2010; Early & Burchinal, 2001; Kim, 2004; Lee & Kim, 2009; Leibowitz *et al.*, 1988; NICHD, 1997; Suh *et al.*, 2001; Sylva *et al.*, 2007), 서비스의 질(Kim, 1998; Tran & Weinraub, 2006) 등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어떠한 차원을 분석하든지, 이들 관련된 요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결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크게 아동과 부모, 가족 및 어린이집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아동요인으로는 아동의 연령과 다른 시간제 프로그램의 이용수를 들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은 보육서비스 유형 및 보호의 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영아의 경우 집단보호보다는 일대일 돌봄이 더 적합하다는 믿음이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돌봄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Ahn & Kim, 2010). 이에 따라 국내의 연구 모두에서, 유아의 경우 친인척보육에 비해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Ahn & Kim, 2010; Early & Burchinal, 2001; Kim, 2004; Lee & Kim, 2009; Suh *et al.*, 2001). 한편, Jeong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아동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Ahn & Kim, 2010). 실제로 영유아의 시간

제 사교육 이용은 반일제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Ahn, 2011a). 따라서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다른 사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모의 학력,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형태 등이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서비스가 본래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서비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근로시간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Kim, 2004; Suh et al., 2001)와 근로시간(Ahn and Shin, 2011; Jeong et al., 2005; Peyton et al., 2001)이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의 양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선행연구에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Ahn & Shin, 2011; Fuller et al., 1996; Johansen et al., 1996; NICHD, 1997; Singer et al., 1998; Suh et al., 2001) 그 영향력의 방향이 일정하지는 않다. 한편, 부모의 선호와 신념도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Early & Burchinal, 2001), 양육신념(Johansen et al., 1996), 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NICHD, 1997; Sylva et al., 2007) 등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으로는 가구소득과 가족구조(한부모가정 여부, 가구내 성인 동거인 유무, 형제자매 수) 등이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소득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은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Early & Burchinal, 2001; Kim, 2004; Lee & Kim, 2009; Leibowitz et al., 1988; Suh et al., 2001; Sylva et al., 2007),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하는 시기를 예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 Shin, 2011). 가족구조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여부와 자녀수, 가구내 성인수는 보육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임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Ahn &

Shin, 2011; Baek & Cho, 2005; Fuller et al., 1996; Lee & Kim, 1990; Leibowitz et al., 1988; NICHD, 1997; Singer et al., 1998; Suh et al., 2001). 이러한 가족구조는 결국 부모의 양육부담정도와 이를 덜어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급도우미를 쓰거나 동거하지 않은 친인척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동거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 또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어린이집의 편리성과 보육의 질과 같은 기관 관련 요인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m, 1998; Peyton et al., 2001). 어린이집의 편리성은 집과 어린이집 간의 거리, 어린이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은 등하원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주며, 응급상황 발생시에 대처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의 질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복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Jeong et al., 2005).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또한 주요 변인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결정 요인을 탐색해봄으로써 효과적인 맞벌이 부모의 지원책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및 어린이집 요인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요인으로 연령, 시간제 프로그램 수,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근로시간, 어머니 학력, 선호하는 보육형태, 가구요인으로 가구소득, 가구 내 어린이집 이용자녀 수, 가구 내 성인 수, 어린이집 요인으로 등·하원 시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목적을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서 선정된 33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의 어머니 66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은 서울 8개소, 경인 7개소, 영남 9개소, 호남 4개소, 충청 및 강원 각각 2개소, 제주 1개소로,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민간 어린이집 31개소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어린이집 전수는 평가인증을 통과하였으며,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었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의 결정이 부모의 선택이기보다는 차량운행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어린이집별로 만1세반부터 만5세반에 재원 중인 아동 중 맞벌이 가구의 남아와 여아를 연령별로 각 2명씩 총 20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이 때 해당 어린이집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재원 중인 가구는 가장 순위 자녀를 기준으로 선정,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총 660부의 설문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의 가구에 발송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밀봉한 상태로 어린이집을 통해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660부 중 총 652부가 수거되어 98.8%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부모 모두 취업 중이면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아동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465명의 아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 가구 및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등원시각부터 하원시각까지 어린이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기 위하여 Suh *et al.*(2009)의 보육실태조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에 출발하는 시간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조사하였고,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각각 조사하여, 실제 어린이집 이

용시간을 산출하였다.

2) 독립변수

① 아동요인

아동의 연령은 만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보육연령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의 수는 Suh *et al.*(2009)의 보육실태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이외에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니는 학원 및 문화센터, 개별교육(개인 및 그룹지도)의 수를 조사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② 부모요인

부모 요인 관련 변인 중 인구학적 특성은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부모의 근로시간은 부와 모의 평일 평균 근로시간을 각각 시간단위로 측정하여 각각 합산한 시간을 사용하였다. 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답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교 졸업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로 구분하였다. 한편 선호하는 보육형태는 Suh *et al.*(2009)의 보육실태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0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별로 부모 이외에 양육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형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탁아모, 일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아동의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형태가 어린이집인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일치로 구분하였다.

③ 가구요인

가구요인 관련 변인은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만원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자녀수는 조사 당시 설문조사를 의뢰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수로, 해당 어린이집을 졸업한 자녀나 대기자 명단에 포함된 자녀는 제외하였다. 가구 내 부모 외의 성인이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는 가구 내 성인의 총 수를 보고하도록 하여, 그 수가 3인 이상인 경우를 부모 외 성인 동거 가구로 코딩하였다. 한편 비 동거 양육보조자 여부는 자녀를 기르는데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 양육자(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또는 아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s	<i>n</i>	%	
Family characteristics	Number of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two	3	0.7
	three	103	22.4
	four	279	60.8
	five	41	8.9
	six and over	33	7.2
	Number of children		
	one	122	26.3
	two	304	65.7
	three and over	37	8.0
	Father's age		
	less than 30	4	0.9
	31-35	110	23.7
	36-40	262	56.5
	41 and over	88	19.0
	Mother's age		
	less than 30	8	1.7
	31-35	187	40.3
	36-40	220	47.4
	41 and over	49	10.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39	8.4
	2- or 3-year college graduate	73	15.8
	4-year college graduate	243	52.6
	post graduate education	107	23.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28	6.1
	2- or 3-year college graduate	107	23.2
	4-year college graduate	249	53.9
post graduate education	78	16.9	
Child characteristics	Gender		
	Boy	243	52.4
	Girl	221	47.6
	Birth order		
	First	304	65.9
	Second	138	29.9
Third and later	19	4.1	

내의 형제자매, 이웃,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의 존재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④ 어린이집 요인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은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접근성

이 떨어지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Shin과 Ahn(2011)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척도 문항 중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목적은 Suh *et al.*(2009)의 보육실태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의 취업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과 그 외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초등학교 준비' 등 교육 및 발달상의 이유를 각각 취업요인과 취업 외 요인으로 재코딩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모형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및 어린이집 요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각 요인들을 다중회귀식에 위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분석에 사용될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 본 결과, 종속변수인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574.8분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약 9.6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보육실태조사(Suh *et al.*, 2009)에서 나타난 취업모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보다 약 1시간가량 많은 것으로 이는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어린이집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소 이용시

간은 4.5시간, 최대 이용시간은 14시간에 이르고 있어 아동에 따라 이용시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참여하는 시간제 프로그램의 평균 이용수는 약 1.7개였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약 40% 가량인 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동은 12개까지도 참여하고 있었다. 부의 평일 근로시간은 평균 9.56시간, 모의 근로시간은 평균 8시간가량으로 부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정도 더 길었으며, 모의 경우 휴직중인 사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총소득은 평균 568만원이며,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중위소득은 500만원으로 맞벌이임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등원과 하원에 각각 약 16분 가량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범위가 16점~80점 사이인데,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보육연령은 1세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2~5세 아동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린이집이 아동의 연령대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 54.2%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나머지 절반가량은 어린이집이 최선의 보육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수는 72.2%가 1명이라고 응답해서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동일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약 28%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외에 동거하는 성인이 있는 가정은 12.2%로 소수였으나,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동거하지 않는 보조양육자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보조양육자 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인척이나 도우미의 도움이 없이, 어린이집 이용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벌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부모의 취업이라는 응답은 35.5%에 불과했으며, 전인적 발달이나 사회성 등 기타 발달이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즉, 맞벌이 가정이라 해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주로 친인척을 활용한 대리양육)으로 양육할 수는 있으나, 아동발달상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외에 다른 보조양육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우리나라의 근로환경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 9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양육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부모 외 동거하는 성인도 보조양육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은 이러한 가

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절반가량은 어린이집이 아동의 연령에 맞는 최적의 보육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	Mean(SD)	Range
Hours spent in child care centers	461	-	574.8(89.3)	270.0-840.0
Child's age ^a				
One or less	63	13.6	-	-
Two	96	20.7	-	-
Three	106	22.8	-	-
Four	98	21.1	-	-
Five	101	21.8	-	-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465	-	1.7(2.2)	0.0-12.0
Father's working hours	442	-	9.6(2.0)	3.0-24.0
Mother's working hours	417	-	8.0(1.8)	0.0-15.0
Preference for child care center as a type of non-parental care				
Prefer	232	54.2	-	-
Do not prefer	196	45.8	-	-
Monthly household income ^b	398	-	568.21(462.1)	60.0-700.0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the child care center				
One	325	72.2	-	-
Two	121	26.9	-	-
Three	4	0.9	-	-
Non-parental adults in the household				
Yes	56	12.2	-	-
No	404	87.8	-	-
Existence of assistant caregiver(s) who doesn't live together				
Yes	257	57.2	-	-
No	192	42.8	-	-
Accessibility to child care centers	456	-	32.1(20.8)	2.0-130.0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centers	458	-	70.6(7.7)	49.0-80.0
Major reason for child care center use				
Parental employment	165	35.5	-	-
Others	300	65.5	-	-

^aClass in child care centers

^bTen thousand Wons

2.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와 같다.

4개 모형 모두에서 변수들의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시간제 프로그램 이용 수, 모의 근로시간, 선호하는 보육형태와의 일치여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수, 가구 내 부모 외 성인의 존재,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

성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목적 등이다.

아동요인 중에는 시간제 프로그램 이용 수가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들이 남은 시간에 다른 시간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의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요인 중에서는 모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모의 평일 근로시간이 길고, 어린이집이 자녀의 연령에 가장 적절한 보육 서비스라고 부모가 인식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hours spent in child care centers

Predictor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	B	B
Child factor	(Constant)	584.83***	560.02***	535.33***	394.94***
	Child age	6.67	3.03	-.07	1.868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7.81**	-7.03**	-6.01*	-5.419*
Parental factor	Father's working hours		-4.37	-4.66	-4.06
	Mother's working hours		8.65**	9.63*	9.12**
	Mother's education (4-year college and more)		-11.01	-8.76	-9.99
	Preference for child care centers ^a		21.90*	24.10*	24.67*
Family factor	Monthly household income(logged)			3.59	2.89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the child care center			21.04*	23.16*
	Non-parental adult in the household			-33.40*	-35.78*
	Existence of assistant caregiver(s) who doesn't live together			-18.19	-17.91
Child care center factor	Accessibility to child care centers				.48*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centers				1.40*
	Major reason for child care center use ^b				24.44*
F		4.87(2, 302)**	4.83(6, 298)***	4.48(10, 294)***	4.74(13, 291)***
R ² (Adjusted R ²)		.03(.03)	.09(.07)	.13(.10)	.18(.14)
ΔR^2		-	.06	.04	.04

^areference category: preference for other types of child care rather than child care centers

^breference category: reasons rather than parental employment (child development, educational purpose etc.)

* $p < .05$, ** $p < .01$, *** $p < .001$.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요인 중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증가하였고, 가구 내 부모 외에 함께 사는 성인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 외에 함께 사는 성인이 있는 경우 아동의 대리양육자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하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대리양육방법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보조양육자의 존재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조양육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기보다는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어 어린이집 이용시간 전후에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요인은 세 변수 모두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어린이집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동이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좀 멀더라도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이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다른 대리양육 방법을 병행하여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장시간동안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취업인 경우, 그 외 교육 및 발달상의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은 가장 많은 변수가 투입된 모형4가 13.8%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모형에 포함된 4가지 요인 모두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설명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변수들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은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모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한편,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되는 요인들로 설명되는 변량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및 어린이집 요인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계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동의 시간제 프로그램 이용수, 모의 근로시간, 선호하는 보육형태와의 일치여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의 수, 가구 내 부모 외 성인의 존재,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목적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가 자신이 부재한 낮 시간 동안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서비스로 어린이집 이용을 선호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근로시간이 보육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Ahn & Shin, 2011; Jeong *et al.*, 2005; Peyton *et al.*, 2001) 결과와 일치하며, 어린이집이 낮시간 대리양육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취업모에게 절대적인 육아지원서비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육사업의 일차적인 목표와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근로시간 이외에 밝혀진 몇몇 유의한 변인들은 맞벌이 가정 내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양한 목적과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부모의 취업이기보다는 자녀의 발달 또는 교육과 같이 취업 이외의 목적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짧았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나머지 시간동안 어린이집 이외의 시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와 같이 가구 내 부모 외 성인이 존재하는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의미 있게 줄어든 것과 함께 해석이 가능한 결과로, 주로 부모 이외의 성인이 부모의 퇴근시간 이전에 하원한 영유아를 보호하는 동안 각종 시간제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 내 성인 수는 보육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임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Ahn & Shin, 2011; Baek & Cho, 2005; Fuller *et al.*, 1996; Lee & Kim, 1990; Leibowitz *et al.*, 1988; NICHD, 1997; Singer *et al.*, 1998; Suh *et al.*, 2001).

흥미롭게도 어린이집 관련 요인 중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때 오히려 이용시간이 길었다.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 더 길다는 것은 이들 아동이 아침에는 더 일찍 집에서 나와 저녁에는 더 늦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이 멀기 때문에 저녁에 부모나 다른 성인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를 오랜 시간동안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상 좀 멀더라도 평판이 좋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집에 장시간 자녀를 맡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다른 자원을 병행해서라도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어린이집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취업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을 선호하도록 하고,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대안적 양육방법을 함께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동안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과는 달리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주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출산·양육기의 여성취업률이 감소하는 것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는데, 맞벌이 가정 내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간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직업적 책임을 들고 있는데(McBride & Rane, 1997),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평일 근로시간이 약 9.6시간으로 어머니보다 약 1.6시간이나 더 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직업적 책임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현재 일·가정의 균형 또는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에 비추어볼 때, 많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Ahn, 2011b). 따라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장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근로시간 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선호와 만족도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갖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자녀가 장시간동안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는 취업모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취업모들은 자신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그 시간동안 자녀가 받게 될 ‘양육의 질’에 대해 고민한다. 따라서 단순히 ‘12시간 종일제 보육’이 아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취업모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보육서비스의 선택과 서비스 이용의 시작, 이용시간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용시간, 맞벌이, 영유아

REFERENCES

- Ahn, J. J. (2011a). A study on the use of preschooler's part-time private educ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age groups and school 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are and Education Policy*, 5(2), 96-120.

- Ahn, J. J. (2011b). The effect of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in early yea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relationship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5, 127-158.
- Ahn, J. J. & Kim, E. J. (2010).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choice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Women's Studies*, 79(2), 5-36.
- Ahn, J. J. & Shin, N. (2011). *The use of child care centers for infants of dual-working families*. 2011 KICCE international seminar & annual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p. 435-451).
- Baek, S. H. & Cho, S. W. (2005). The determining factors of expenditure levels for day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1(6), 429-455.
- Early, D. M. & Burchinal, M. R. (2001).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475-497.
- Fuller, B., Holloway, S. & Liang, X. (1996). Family selection of child-care centres: The influence of household support, ethnicity, and parental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7, 3320-3337.
- Jeong, S. W., Ahn, J. J., & Kim, S. W. (2005).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ild care use for preschool children.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9(1), 105-126.
- Johansen, A. S., Leibowitz, A., & Waite, L. J. (1996).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haracteristics to choice of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59-772.
- Kim, K. Y. (1998). *The child care situation of the dual career families of the middle class and relation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Kim, J. K. (2004). Use of childhood care centers an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f choosing an institut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8), 65-76.
-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Child care statistics 2011*. Seoul, Korea: Author.
- Lee, G. S & Kim, J. H. (2009). Analysis of women's selection pattern on kindergarten/child care centers and private tutoring for young childre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10), 464-473.
- Lee, J. Y. & Kim, M. S. (1990). The dynamics of child care use of working mothers.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5, 13-42.
- Leibowitz, A., Waite, L. J., & Witsberger, C. (1988). Child care for preschoolers: Differences by child's age. *Demography*, 25(2), 205-220.
- McBride, B. A., & Rane, T. R. (1997). Role Identity, role investments, and paternal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ogram for ma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173-197.
- Peyton, V., Jacobs, A., O'Brien, M., & Roy, C. (2001). Reasons for choosing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family factors, quality, and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191-208.
- Shin, N. & Ahn, J. J. (2011). A Study for validation of the parental satisfaction scale for child care centers.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6, 231-259.
- Singer, J. D., Fuller, B., Keiley, M. K., & Wolf, A. (1998). Early child-care selection: Variation by geographic location,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struc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129-1144.
- Suh, M. H., Kim, E. S., Choi, J., Ahn, J. J., Choi, H. S., Kim, Y. K., & Cho, A. J. (2009). *2009 National survey on current status of child care in Korea: A household survey report*. Seoul, Korea: Korean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Suh, M. H., Lim, S. H., & Kim, Y. K. (2001). An analysis of child-rearing status and the usage and cost of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im, S.

- K.(Ed.), *A Study on trend and countermeasures for birth history and family health affairs* (pp. 221-265).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ylva, K., Stein, A., Leach, P., Barnes, J., Malmberg, L. E., & the FCCC-team (2007). Family and child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non-maternal infant care: An English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18-136.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89-408.
- Trans, H. & Weinraub, M. (2006). Child care effects in context: quality, stability, and multiplicity in nonmaternal child care arrangements during the first 15 month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566 - 582.

접 수 일 : 2012. 06. 29.

수정완료일 : 2012. 09. 26.

게재확정일 : 2012. 10. 08.